

고령자패널조사의 설문 내용

고령자패널팀

I. 머리말

압축적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대비한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해서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고령자패널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¹⁾ 고령자패널조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개발되고 있다. 첫째, 고령화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령자의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삶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자료를 구축한다. 둘째, 고령화가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국가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고령화 현상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나라 고령자패널조사 설문지가 개발되고 있는데, 미국 고령자패널조사(HRS)와 유럽의 고령자패널조사(SHARE) 설문지를 주로 참고하고 있다.²⁾

여기서는 현재 개발중인 고령자패널조사의 설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비록 설문 내용 및 설문 문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이거나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고령자패널조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먼저 전체적인 설문 영역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 각 영역별로 주요 설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1) 고령자패널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노동리뷰』 2005년 4월호를 참조.

2) 최근 자료가 구축되기 시작한 영국 고령자패널조사(ELSA)와 유럽 고령자패널조사(SHARE) 역시 미국 고령자패널조사와 비교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 중국 및 일본 역시 미국 HRS와 비교가능한 고령자패널자료를 구축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

II. 설문 영역 구성

2006년 본조사 실시를 목표로 현재 개발하고 있는 고령자패널조사의 설문 내용은 고령자의 인구학적 특성, 노동시장 특성, 건강 및 보건, 개인 심리, 자산 및 소득, 주거,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측정하는 10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건강 및 보건에 대한 내용은 크게 건강상태, 의료시설 이용현황, 일상생활 수행능력, 건강보험 가입 등 4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개인 심리의 경우 2006년 1차 조사에서는 주관적 기대감을 측정하는 영역만 포함되었으나, 향후에는 개인의 인지능력을 묻는 영역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노동시장 특성에서는 고용현황 이외에도 은퇴 및 연금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

<표 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고령자패널조사와 미국의 HRS, 유럽의 SHARE의 설문

<표 1> 미국, 유럽 및 우리나라 고령자패널조사의 설문 영역

	고령자패널조사	HRS 2004년	SHARE 2004년
인구학적 특성	인 구	Demographics Widowhood Divorce	Demographics
노동시장 특성	고 용	Employment Retirement Pensions	Employment and Pension
건강 및 보건	건강상태 보건의료 이용 일상생활 수행능력 건강보험	Health Status Health Care Utilization Health Care Costs ADLs Disability Health Insurance Life Insurance	Physical Health Mental Health Behavior Risk Health Care Grip Strength Walking Speed
개인 심리	주관적 기대감	Cognition Expectations	Cognitive Function Expectations
자산 및 소득	개인소득 및 가구자산	Assets and Debts Income Capital Gains Asset Verification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ssets
주 거	주 거	Housing	Housing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가족구조 및 사회적 관계	Family Structure Transfers Event History	Children Social Support Financial Transfers

영역 구성은 약간씩 다르다. 이는 각 국가들이 가진 관심사항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록 영역 구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고령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Ⅲ. 주요 내용

1. 인 구

개인과 가구의 특성을 간단히 보여주는 인구통계 영역은 HRS의 인구통계 영역과 기본적인 구조를 함께 하고 있다. 전체적인 설문 구조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생년월일을 시작으로 교육수준, 청소년기의 건강 및 경제적 상황, 부모의 교육수준, 자녀수, 군대경험, 거주지 변화, 혼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HRS에서 포함된 출생 국적, 민족/인종, 언어 부문은 한국적 실정과는 동떨어진 관계로 생략하였다.

학력을 묻는 질문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이므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옛 학교 이름인 보통학교, 공민학교를 괄호로 하여 추가 설명하였고, 중·고등학교 학력에 검정고시와 같은 학력인증제도도 설문 문항에 포함시켰다. 또한 당시 교육수준을 감안하여 ‘무학’의 경우에도 글자 해독가능 여부를 질문하였다.

청소년기의 건강 및 경제적 상황을 묻는 질문들은 HRS와 동일하게 16세를 기준으로 묻고 있으며, 그 시기의 건강상태와 가정형편,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이사 경험, 다른 주변사람의 경제적 지원 여부, 당시 부모님의 직업 및 학력과 같은 항목들이 세부적으로 포함되었다. 청소년 시절 거주지를 묻는 설문 문항은 미국과 한국의 거주지 개념과 스케일이 다르므로 우선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로 나누어 질문한 후, 광역 단위로 그 지역을 묻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HRS의 혼인력에 대한 설문 문항은 CAPI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HRS 형식은 현재의 혼인상태를 간단히 묻고 이혼을 한 경우 초기 결혼부터 마지막 결혼의 순서로 물으며 마지막에 다시 최근 결혼상태 및 기간을 묻는 구조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설문 구조가 더욱 복잡하여 고령자패널조사에서는 현재 결혼상태 및 2번 이상 결혼을 한 경우에는 처음 결혼부터 최근 결혼에 대해서 묻는 방식으로 설문 구조를 바꾸었다.

2. 고용

고령자패널조사에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상황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령화가 가져올 충격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동력의 고령화와 공급 부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으며,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은퇴를 하는지, 그리고 근로를 통하여 노후소득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이번 고령자패널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고령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구와 달리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비하여 고령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은퇴과정 부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용 영역의 설문 내용은 크게 고용 및 은퇴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고용 부분에서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시작으로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측정한다. 임금근로자인지 아니면 자영업자인지를 측정하고, 일자리의 산업과 규모, 현재 근무하는 일의 종류, 직위, 이 일을 시작한 시기, 근로시간, 시간외근로, 정년 연령 등 일자리의 특성을 포함한다. 근로로 인한 소득 역시 고용 영역에서 질문한다. 그리고 현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포함하여 현재 하는 일이 물리적인 힘을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는지도 포함한다. 또한 주된 일자리 이외에 다른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일자리에 대한 특성 역시 측정한다.

HRS의 경우 고령자의 일자리에서 제공하는 기업연금에 대한 내용이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가입 연금의 종류와 향후 급여 예상액, 수령방식과 주기, 직장을 그만두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연령, 만약 일자리를 바꾸었다면 이전과 같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퇴직금 이외에 별다른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마지막 일자리의 특성에 대하여 질문한다. 가장 최근의 일자리를 그만둔 시기와 근속년수, 일자리의 산업 및 직장의 규모, 일의 종류 및 직위, 근로시간, 근로소득 등 앞과 유사한 내용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실업상태인 경우는 실업의 이유, 구직활동 여부 및 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등을 질문한다.

현재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상태라면 은퇴시기와 은퇴 전 마지막 일자리에 대한 특성을 질문한다. 더불어 은퇴를 한 이유와 은퇴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질문과 함께, 비록 은퇴하였으나 현재 소득이나 수입을 얻기 위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알아본다. 만약 은퇴하지 않은 경우라면 향후 은퇴연령과 계획 -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변

경, 자영업 개업 등-에 대해서 묻는 질문도 포함된다.

3. 건강상태

건강 영역에서는 우선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만성 질환 및 시력, 청력, 통증, 요실금 등 육체적 건강과 우울증을 중심으로 한 정신적 건강을 조사한다. 그 외에 키, 몸무게 등 체질량지수 조사와 성별에 따른 건강진단(유방암, 전립선암 검사 등) 및 운동, 흡연, 음주 등 건강 습관에 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만성질환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중장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암, 폐질환, 심장질환, 뇌졸중, 정신질환, 관절염 등 8개 질환으로 제한하여 각각의 질환에 관한 진단 시기와 현재 약 복용 여부 및 치료상태 등에 관해 보다 자세히 질문한다. 이는 만성질환의 종류를 크게 10개의 질환(암, 근골격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성 질환, 순환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신경계 질환, 피부, 비뇨생식기계 질환, 구강 질환, 눈, 귀 질환)으로 분류하고 그 안에서 다시 구체적인 병명으로 조사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보건복지부 조사방법과는 약간 다르다. 더불어 65세 이상의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한 낙상관련 질문이 추가되었다.

4. 보건의료 이용

보건의료 이용 영역에서는 고령자의 보건의료 이용행태를 알아보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입원, 외래진료, 왕진, 가정간호, 약처방 등을 이용한 횟수와 기간, 비용, 비용을 지불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우선 입원과 요양원을 구분하여 각각 입원한 횟수와 기간, 비용, 입·퇴원한 시기에 대해 질문한다.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경험도 외래 진료, 치과 진료, 방문 진료로 구분하여 진료받은 횟수와 비용, 비용을 지불한 방법에 대해 조사한다. 노인들은 가정에서 물리치료 등의 가정방문 치료를 받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가정방문 치료에 대해서도 따로 묻는 문항을 포함한다.

또한 건강보험으로 지불한 치료비와 본인이 부담한 정도를 각각 질문하고, 치료비를 어떻게 지불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 중에서 가족이나 친지가 어느 정도 도와주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항목을 포함시켜 의료 소비가 많은 고령자들과 그 가족이 의료비로 인해 겪는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은 삭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서 한방 병·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특히 노인들이 한방 병·의원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방 병·의원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5. 일상생활 수행능력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역에서는 고령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ADLs)과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s)을 점검하는 질문을 시작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 누군가의 혹은 어떤 도구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동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구성하는 지표는 걷기, 앉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무릎 꿇기, 팔 내밀기, 당기거나 밀기, 들어올리기, 동전 집어올리기 등이다. KLOSA에는 65세 이상 응답자에 대해서는 운전 능력에 대해 추가 질문하는 문항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항목에 대해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어떤 도구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도 조사한다.

도우미에 대한 질문은 도우미를 몇 명 두었는지, 그리고 응답자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질문한다. 도우미에 관한 내용은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부분에서도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점검하는 질문이 있다.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란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아주 기본적인 기능 외에 약간의 복합적인 적응능력이 필요하거나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시장보기, 전화하기, 약 먹기 등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러한 것에 대해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다.

한편 HRS에서는 응답자의 지난 1년간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고령자패널조사에서는 여가와 대인관계 항목을 따로 만들어 자원봉사활동을 포함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수행능력 항목에서는 제외하였다.

6. 건강보험

건강보험에 관한 설문 내용은 크게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제도, 그리고 사적 건강보험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미국의 HRS에서처럼 별도로 미가입 여부를 묻는 질문이 필요 없이 모든 응답자가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제도 대상자로 자동으로 분리되어 질문에 답하도록 구성하

였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다시 가입자 명의(본인/가족) 및 가입형태(직장/지역)에 따라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 및 체납 여부를 조사하며, 전반적인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질문을 추가하였다. 의료급여제도는 대상자가 현재 및 과거에 의료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간략히 조사한다.

건강보험 설문조사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적 건강보험 부문에서는 가입 여부 및 대상자, 보험료, 혜택의 종류 등을 조사하며, 특히 사망보험금에 관해서는 지급 여부와 수익자, 보험금 액수 외에 약관대출 및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자세히 조사한다. 한국에서의 사적 건강보험은 상해, 질병 등에 관한 제3보험 외에도, 생명보험 내의 정기 또는 중신보험 특약, 손해보험 내의 인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각각에 대한 구별없이 건강보험의 성격인 보험은 모두 함께 포함하도록 하였다. HRS에서 생명보험으로 한정하여 다루는 사망보험금도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모든 형태의 보험을 함께 조사한다. 이는 보험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에 관한 보험을 들고 있는가, 혹은 가입한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도해지나 최근 신규가입 등 보험가입의 변경여부 관련 조사는 추후에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HRS에서는 2000년도까지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 이용’ 부문을 별도로 조사하다가 2002년부터는 하나의 섹션으로 통합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HRS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 이용부분 연계조사는 추후에 고려하기로 하고, 우선 첫번째 조사년도에서는 별도로 분리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참고로 HRS에는 미국의 공적 의료보험제도인 Medicare(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Medicaid(저소득층 대상)의 특성상 양로원 거주비 및 장기요양비 부담관련 내용과 기업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혜택 및 지정의사 이용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7. 주관적 기대감

고령자의 기대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영역으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이나 노동시장, 남북통일, 사회보장 등 국가적인 사안에 대한 기대수준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의 재정지원, 재산상속, 요양시설 이용, 생존율, 저축 계획 등 개인적인 차원의 기대수준도 조사한다. 이 영역은 고령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고안되었다.

국가적인 차원의 기대수준을 조사하기 위한 세부항목은 물가상승률 변동과 경기변동, 실직과 구직의 가능성, 노후의 근로활동 가능성 등을 질문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

대수준을 확인하는 항목도 포함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HRS에서는 조사하지 않는 통일과 부동산에 관한 전망을 묻는 질문이 추가된다.

개인적인 차원의 기대수준을 묻는 항목으로는 유산의 증여 및 상속의 가능성과 규모를 질문하고, 거주지 이동에 관하여 이사 가능성, 이주 지역, 거주 형태를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또한 자신의 수명에 관한 기대수준과 노후의 재정상태에 관한 예측, 요양시설 이용의 가능성, 저축계획, 자녀의 재정상태에 관한 기대수준을 묻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8. 개인소득 및 가구 자산

개인소득 영역은 주로 사회보장 급여를 통해 들어오는 소득과 저작권·특허권, 위자료 및 부양비 명목으로 책정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며, 재정관리 책임자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도 포함된다. HRS의 개인소득 영역에서 다루었던 자영업자의 소득, 자영업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이외의 전문활동이나 거래를 통한 소득, 부업소득, 군 적립금 등에 관한 항목은 고용 영역에서 다룬다.

사회보장 급여를 통한 소득은 사회보험 급여와 공공부조 급여를 구분하여 조사하며, 사회보험 급여는 다시 국민연금, 특수직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훈연금으로 구분하여 급여의 수급 여부와 급여시기를 조사한다. 국민연금은 구체적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으로 구분하여 수급 여부와 급여액을 질문하고, 특수직연금 또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도록 하였다. 산재보험 역시 세부항목을 휴업급여, 장애연금, 유족급여로 구분하고, 고용보험도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세분화하여 사회보험 급여를 통한 소득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가구 자산은 한 가구의 자산관리를 누가 맡아서 하느냐에 따라 개인별 또는 가족별로 다르게 조사될 수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크게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기타 비금융자산, 부채 등으로 나뉜다.

우선 부동산 또는 사업체/농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소유자산의 현금가치, 그리고 지대, 임대료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액수와 빈도, 규칙성에 관해서 조사한다. 자산가치 금액을 정확히 대답하지 못하는 응답자들을 위해 범위 질문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데, 자산가치 범위의 수준은 각 해당영역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자산은 크게 주식, 채권, 보통예금/당좌예금/MMF, 양도성예금(CDs), 제2금융권 저축(상호저축, 금고, 협동조합 등), 저축성 보험, 사채, 계 등 비교적 자세하게 조사한다.

이들 각각에 대한 소유 여부와 그 자산가치,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는지, 그렇다면 그 액수와 주기, 규칙성 등을 질문함으로써 개인 또는 가구를 대표하는 응답자가 총 합계액을 잘 모르는 경우에도 개별 금융자산 종류별 합산을 통해 추정가능하도록 하였다. 한국의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은행권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2금융권 저축 및 사채와 계를 별도로 포함하고 것이 미국의 HRS 설문과 다른 부분이다.

이 외에 자동차 등 운송수단 및 보석/예술품 등 비금융자산의 소유 여부와 소득공제, 자산기부, 증여/상속, 유언장 내용 등의 질문이 포함된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저축이 증가했는지 아니면 반대로 자산이 감소했는지의 질문을 통해 자산가감 여부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채관련 사항으로는 은행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금융기관 부채, 신용카드 부채, 사채나 친지 등 개인적으로 빌린 돈, 기타 등으로 분리하여 조사하고 있다.

미국의 HRS 설문은 자산/소득/부채가 하나의 섹션으로 통합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 고령자패널조사는 이를 ‘가구자산(부채 포함)’과 ‘개인소득’으로 분리하고 있다. 또한 ‘개인소득’ 영역에서는 주로 국민연금, 실업수당, 산재보상금, 기초생활보장금 등 사회보험 소득을 다루고, 근로소득은 ‘고용’ 영역에서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근로소득이 고용 및 근로조건 등과 함께 조사될 때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HRS에서는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근로소득을 자산/소득 영역에서 조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고령자패널조사에서는 이를 ‘가족구조’ 영역에서 다룬다. 또한 HRS에서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개인에게 지급되는 공공부조 형태의 푸드스탬프(Food Stamps)에 관한 질문이 비교적 자세하게 포함되어, 돈이 부족하여 식사를 거른 적이 있는가 등의 문제를 다루는 ‘음식물 섭취의 적정성’ 관련 조사 질문이 동일섹션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 고령자패널조사에서는 이를 ‘건강’ 조사 영역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9. 주거

주거 영역에서는 현재 주로 거주하는 집 이외에 별도의 주택, 그리고 주택을 둘러싼 땅과 농장을 조사 범주에 포함시켰다. 주거 항목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형태와 소유권, 재산가치 등을 묻는 질문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실버타운 등 고령자 주택에서 사는지, 그리고 거주하는 집의 구조, 별장을 포함한 별도의 집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조사에서는 집의 형태(농장인지, 일반주택인지 아파트인지 등)와 그 집의 소유권, 재산가치, 집의 명목이 누구에게 있는지, 집에 대한 부동산세 등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하도록 하였다. 특히 집의 정확한 가치를 알기 위해 주택을 담보

로 한 대출, 토지 거래, 기타 용자금의 규모와 현재 상환하고 있는 금액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구조를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해 전·월세, 하숙 등 세 들어 사는 경우를 세부적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에서는 계약형태와 보증금, 계약기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미국은 고령자주택이 발달하여 HRS에서도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주택에 대해 질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노인을 위한 주택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아서 실버타운과 같은 노인복지주택만을 포함시켰다. 이 부분에서는 입주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별도의 이용료가 얼마인지에 대해 묻고 있다.

집의 구조에 대한 조사는 노인들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전반적인 주택 상태, 몇 층에 사는지, 부엌이 있는지, 방의 개수, 엘리베이터와 집안에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 집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쉬울지 아니면 어려울지에 대해 묻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 목적을 가진 집을 제외한 또 다른 집에 대해 조사한 항목이 있다. 이 집에 대한 조사항목은 집의 소유형태, 소유권, 집의 현재가치, 명의, 언제 구입했는지 등 현재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조사항목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앞으로 이 집에서 거주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이 추가되었다.

10. 가족구조 및 사회적 관계

가족구조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영역은 고령자의 가족구조 및 사회적 연계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고령자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질문지를 구성하고, 이 외에 고령자의 사회적인 관계망과 배우자와의 관계에 관한 질문들도 포함된다.

고령자의 자녀와 관련한 문항들은 자녀의 결혼상태, 주택소유 여부, 결혼상태, 거주지역의 근접성 등의 기본정보와 연령, 학력, 재정적 기여도, 근로활동, 동거여부, 소득, 자녀수 등과 같은 개인별 특성 및 손자녀, 증손자녀에 관한 질문들을 포함한다. 손자녀와 관련된 질문들은 손자녀에 대한 보살핌과 관련된 문항들도 포함되며 손자녀 보살핌에 할애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도 조사한다. 이외에도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의 자녀에 대한 이전 항목도 포함된다.

부모와 관련된 항목은 생존과 사망으로 구분하여, 생존 부모의 경우 연령, 일상생활 도움여부(ADL), 치매 등을 확인하고, 사망한 부모의 경우 사망 연령, 사망 원인, 사망시 보호시설 입소 여부 등을 질문한다. 또한 부모의 결혼상태를 확인하고 부모의 주택소유

여부, 재정적 상태, 조사대상자와 부모와의 근접성, 접촉빈도 등을 확인한다.

형제·자매에 관해서는 형제·자매의 수와 결혼상태, 연령, 학력, 재정상태, 근로활동 상태, 가족사항 등의 개인별 특성과 부모에 대한 이전 혹은 지원상태를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이 외에 부모님의 인척,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부모의 인척의 지원과 관련해서도 위와 동일한 문항들을 확인하고, 친구나 이웃과의 접촉빈도 등 사회적인 관계망과 배우자와의 관계에 관한 질문들도 포함된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현재 개발하고 있는 고령자패널조사의 설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고령자패널조사의 설문 내용 및 설문지는 초고가 완성되는 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설문지 초고를 작성한 후, 2차례의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한 후 최종 확정하게 될 것이다.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고령자패널조사의 설문 내용은 이미 구축된 외국의 고령자패널 조사를 많이 참고하여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고령화에 대한 국가간 비교가능한 패널자료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50년부터는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나라 고령화 과정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패널자료를 구축함으로써 고령화에 대한 국제적인 정책적·학술적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